

아카루트 2021년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

# 컨템포러나이어티를 정의하기 : 행성성을 상상하기

Defining Contemporaneity:  
Imagining Planetary

저자 | 테리 스미스(Terry Smith)

번역 | 곽승찬 (고려대 건축학과)

▶ 이 번역논문은 [2021년 아카루트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DBpia



아카루트

## 컨템포러나이더티를 정의하기: 행성성을 상상하기 (Defining Contemporaneity: Imagining Planetaryity)<sup>1)</sup>

테리 스미스(Terry Smith)

\*번역: 곽승찬 (고려대 건축학과)

오늘날 컨템포러나이더티(contemporaneity)를 생각하고, 그것과 컨템포러리 미술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는 컨템포러나이더티의 개념 그 자체로부터 출발할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할 것이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방법의 다중성. 타인들과 같은 시간, 바로 지금에, 그러나 또한 (토착적 지식을 포함하는) 이전과 미래의 시간들에, 모던이 아닌 시간성들과 다른 종류의 시간에 우리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가능성은 어떤 종류의 구분짓기를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이래로 존재해왔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398년에 쓰인 성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e)의 『고백록(Confessions)』에 등장하는데, 시간의 구조에 대한 근래의 사상과 여전히 공명한다. 인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들을 마치 현재인 것처럼 가장 잘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신과 성스러운 존재에게 허락된 영원성과 대비된다. 하지만, 1820년 6월 25일에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빌헬름 헤겔(Georg Friedrich Wilhelm Hegel)에 의해 작성된 『법철학(The Philosophy of Right)』의 서문을 통해, 근대적인(modern) 개념의 윤곽 그리기를 시작해보자. 여기에 유명한 부엉이의 비유가 등장한다.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철학의 과제인데, 이는 존재하는 것이 이성이기 때문이다. 개인에 대해 말하자면, 모든 이는 자기 시대의 자식이다. 따라서 철학 역시 그것의 시대를 사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어떤 철학이 그것의 현재 세계를 초월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개인이 그의 시대나 로도스를 뛰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그는 이것이 우리를 “특정한 것과 우발적인 것”, 다시 말해 현재주의(presentism)에 속박시킨다는 것을 부정한다. 대신, 그는 삶의 목표인 “주관적 자유”가 “실질적 현실에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명한 비유로 그는 이렇게 끝맺는다. “세상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려는 욕망에 대해 한 마디만 덧붙이자.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철학은 적어도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세상에 대한 사상으로서는 철학은, 현실이 그 형성 과정을 완성하고 준비가 되기 전까지 등장하지 않는다. ... 철학이 그것의 회

1) Smith, T. (2016). Defining Contemporaneity: Imagining Planetaryity. The Nordic Journal of Aesthetics, 24(49-50).

색을 회색으로 칠할 때, 한 생명의 형태는 이미 늙게 되며, 회색으로 그것은 다시 젊어질 수 없이 그저 인식될 뿐이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깃들 때에야 비로소 날아오른다.” 2)

기술적이거나 영역적인 관점에서, 이는 존재론(ontology)이 스스로를 의무론(deontology)으로 옮겨갈 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경고이다. 더 넓게 보면, 이는 세계 그 자체가 사상의 생산에 주도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철학자는 전달하면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전령사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헤겔은 플라톤의 동굴 우화에 반대되는 비유를 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비유의 시각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얀 산래담(Jan Sanraedam)의 1604년 에칭 작업(대영박물관 소장)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빛으로 인도되는 함축적인 내러티브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헤겔 시대 전통적인 화가들의 전형적인 총천연색과 비교되는 그리자유의 사용, 그 둘 사이의 대비에 가까울 것이다. 장 오귀스트 도미니크 앵그르(Jean Auguste Dominique Ingres)가 1814년에 그린 <오달리스크(Odalisque)>(루브르 소장)와 그와 그의 학생들이 10년 이상 지난 뒤에 제작한 그리자유 버전(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을 비교하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회색 위에 회색을 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헤겔의 요점의 정확한 실증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은 지식을 얻지만 삶은 얻지 못한다.

대부분의 중요한 철학자들은 세계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게 어떤(무엇 같은) 경험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시각적인 비유를 사용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불균등하지만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비유의 실제(actuality)로의 수렴을 추적할 수 있다. 폴 리코어(Paul Ricoer)의 『시간과 이야기(Time and Narrative)』는, 다른 무엇보다 서양사상의 이와 같은 전개과정에 관한 한가지 기술이다.<sup>3)</sup> 이는 피터 오스본(Peter Osbourne)의 『시간의 정치학: 모더니티와 아방가르드(The Politics of Time: Modernity and Avant-Garde)』의 한 가지 주제이기도 하다.<sup>4)</sup>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목표는 동시대성에 관한 동시대적인 숙고에 있어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조망하는 일이므로, 현재 쪽으로 네다섯 발자국만 옮겨보자.

쇠렌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는 1846년에 쓴 논쟁적인 저서 『현 시대(The Present Age)』를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 시대는 본질적으로 합의와 반영 중 하나인데, 열정이 없고, 종종 갑작스레 열광하다가 재빠르게 다시 정적으로 가라앉는다.<sup>5)</sup>

이어서 그는 자기 시대의 일상화한 범속성과 “평준화하는” 관습들에 관해 본인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상세히 논한다. 그에게 있어 차별점은 언제나 시간과의 상당히 다른 관계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있다. 그 요구란, 그가 인생의 마지막 몇 달간을 쏟은 정기간행물에 붙인 이름이기도 한 ‘순간(The Instant)’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것이다. 거기서 그는 가장

2) Georg Friedrich Wilhelm Hegel, *The Philosophy of Right*, trans. S. W. Dyde (New York: Cosimo, 2008), “Preface,” xx and xxi.

3)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1985 and 1988).

4) Peter Osbourne, *The Politics of Time: Modernity and the Avant-Garde* (London: Verso, 1995).

5) Søren Kierkegaard, *The Present Age* [1846], trans. Alexander Dru (New York: Harper Torchbook, 1962), 33.

추구되어야 할 “동시성(sametime)”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동시성(contemporaneity)이었다.<sup>6)</sup>

발터 벤야민은 이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숙고했다. 가장 유명하게는 그의 마지막 저술, 『역사철학테제(Theses on the Philosophy of History, 1940)』가 도입부에서 자신이 몇 년간 소장했던 파울 클레(Paul Klee)의 수채화 <새로운 천사(Angelus Novus, 1920)>를 다뤘다. 벤야민이 그림을 샀던 전시회에 있던 파울 클레의 또 다른 작품 <추락하는 새(Crashing Bird, 1919)>는, 우리가 진보라고 알고 있는 “낙원으로부터 불어오는 폭풍”에 천사가 놀라 당황하고 있다는 벤야민의 해석과 달리, 클레의 관심이 1차 대전의 충격이었음을 드러낸다. 나는 벤야민이 1930년대 후반에 작업했던 『아케이드 프로젝트(The Arcade Project)』의 “N” 폴더에 있는 변증법적 이미지에 대한 진술을 여기 인용하겠다.

모든 현재는 이 현재와 동시적인 이미지들에 의해 규정된다. 모든 지금은 특정한 인식이 가능한 지금인 것이다. 이 지금 속에서 진리에는 폭발 직전의 시간이 장전된다... 과거가 현재에 빛을 던지는 것도, 그렇다고 현재가 과거에 빛을 던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미지란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과 섬광처럼 한순간에 만나 하나의 성좌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미지는 정지 상태의 변증법이다. 왜냐하면 현재가 과거에 대해 갖는 관계는 순전히 시간적·연속적인 것이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에 대해 갖는 관계는 변증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적인 성질이 아니라 이미지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다. 변증법적 이미지만이 진정 역사적 이미지이다. 즉 태곳적 이미지가 아니다. 해독된 이미지, 즉 인식 가능한 지금 속에서의 이미지는 모든 해독의 기반을 이루는 위기적이며kritisch, 위험한 순간의 각인을 최고도로 띠고 있다.<sup>7)8)</sup>

여기서 작동 중인 변증법은 절대적인 역사적 과정으로서 대립항들을 종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계시적인 사건으로, 헤겔의 ‘인식’과 ‘다시 젊어짐’을 급진적인 파열으로 경험되도록 하나로 종합한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이를 알아챈 사람들 중 하나였다. 『철학의 여백(Margins of Philosophy)』에서의 차연(différance)에 관한 자신의 가장 열띤 논의 도중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연(Nachträglichkeit)의 구조는 시간화(temporalization)(시간내기(temporization))를 상관적인 흔적들과 미래지향적인(protentional) 열림의 근원적이고 멈춤 없는 종합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해 되돌아가는 종합, 자신으로 모아지고 자신을 모으는- 으로 현재를 사는 단순한 변증법적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사실상 금지한다. “무의식”의 타자성은 우리를 -과거나 미래로- 변형된 현재의 지평에 관련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도 현재가 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과거”에 관련되게 한다. 그것의 미래는 결코 현전의 형태의 생산이나 재생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sup>9)</sup>

6) Kierkegaard's Writings, vol. 7,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ch. 4 “The Case of the Contemporary Disciple”에 실린 Søren Kierkegaard, Philosophical Fragments [1844]와 Kierkegaard's Writings, vol. 20, trans. Howard V.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에 실린 “Anti-Climacus”의 Practice in Christianity [1850]의 상세한 해설을 볼 것.

7) Walter Benjamin, The Arcades Project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N, 3, 1, p. 463.

8) 논문은 각주 7의 영역본을 인용하였으나, 여기서는 기존 출판된 국역본의 해당부분을 인용하였음. (발터 벤야민, 조형준 역, 『아케이드 프로젝트 1』) - 역자 주

9) Jacques Derrida, Margins of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82)

이는 그가 헤겔을 사변적인(speculative) 철학자로 재해석 -사실상 해체- 할 뿐 아니라, 벤야민의 비유를 그 폭발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변증법이 근간에 있다는 가정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그라마톨로지(Of Grammatology)』의 “명구(Exergue)”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래는 절대적인 위협의 형식 속에서만 예고될 수 있다. 미래는 성립된 규범성(normalité)과 절대적으로 단절된 무엇이며, 따라서 일종의 괴상 망측함(monstruosité) 속에서만 자신을 예고하고 스스로를 현전시킬(présenter) 수 있다. 앞으로 올 이 세상에 대한, 그 세상으로부터 기호,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등의 가치들을 뿌리째 흔들어놓을 것에 대한 그리고, 우리들의 전(前)미래를 이끌고 갈 것에 대한 명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sup>10)11)</sup>

이른바 후기 데리다는 바로 이 “명구”를 쓰는 일에 투신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컨템포러나이어티에 대해서는 출판된 글을 통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드물다. 그러나 그는 내가 정확히 10년 전인 2004년 11월 초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54회 카네기 국제박람회에서만 학자, 이론가, 예술가, 비평가, 큐레이터들에게 “컨템포러나이어티 질문”을 제기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질문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기되었다.

모더니티의 여파 속에서, 그리고 포스트모던의 소멸 속에서, 우리는 컨템포러나이어티의 조건들 속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고 또 보일 수 있을까?<sup>12)</sup>

모든 그와 같은 유도심문들처럼, 이 질문은 왜 그것이 제기되는지에 관해, 또 문제시된 것을 식별하는 정밀함에 관해, 그리고 수용될 것으로 상정되는 답변의 종류에 관해 수많은 가정들을 담고 있었다. 우리의 서문은 질문의 취지와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이것은 지금의 개인적 존재와 사회적 소속에 대한 질문이며, 오늘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말, 텍스트, 예술 작품, 그리고 전시 속에서 말이다. 이 책의 편집자들은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예리한 설명 -간단히 말해서, 거대규모의 세계상 그리기와 소규모의 세계 만들기- 을 제공할 때, 모더니티에 대한 포스트모던의 의구심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인다는 직감에서 출발한다. 이는 모더니티와 결부된 거대규모 세계 만들기의 종류들과 전체화(totalization)의 다양한 기획들이, 비록 복수의, 우발적인, 상충하는 형태일지라도, 다시 지배를 시작했음을 의미하는가? 혹은 이는 내부적으로는 얼마나 분화되었고 회의적일지 몰라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프레임워크가 사상의 먼 끝단을 형성할 힘을 잃었고 따라서 일상 생활의 구체성을 잡아낼 능력을 잃어버린 조건 속으로 세상이 진입했음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별거벗은 채로 현재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컨템포러나이어티는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충전된 만큼이나 경계하는 의구심으로 가득찬 것, 모더니티가 포함되는 다양한 과거들의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호소에 빠져있는 것처럼 보

10)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6), 5.

11) 논문은 각주 10의 영역분을 인용하였으나, 여기서는 기존 출판된 국역본의 해당부분을 인용하였음. (자크 데리다, 김성도 역, 『그라마톨로지』) - 역자 주

12) 다음의 나의 글을 볼 것. “Introduction: The Contemporaneity Question,” in Antinomies of Art and Culture: Modernity, Postmodernity, Contemporaneity, eds. Terry Smith, Okwui Enwezor and Nancy Conde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8), 1.

이는, 그러나 여전히 모든 곳에서 그리고 어느 때에나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를 절박한 질문으로 제기하는 것이다.<sup>13)</sup>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과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에서부터 로절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와 기타 카푸르(Geeta Kapur)를 거쳐 맥켄지 워크(McKenzie Wark)와 니코스 파파스테르지아디스(Nikos Papastergiadis)에 이르는 컨퍼런스의 발표자들은, 이 질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했다. 그것을 소개하며, 나는 “컨템포러리”라는 단어에 내재된 의미의 다층적 복잡성과 시대에 따른 우선순위의 변화, 특히 지금은 우리의 컨템포러니어티 내의 하부집합으로 남아있는 “모던”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의미 집합의 변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의 핵심 주장은 종종 인용된 바 있다.

만약 우리가 이 속성을(물론, 그 특질에 반해서) 세계상 그리기의 열쇠 삼아 일반화한다면, 우리는 다른 설명들이 가상적으로 배제되는 가운데, 구성적인 특징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컨템포러니어티의 특징이 바로 지각의 급진적 분열들과 동일 세계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불일치한 방법들의 가속화와 편재성과 항상성, 그리고 비동기적 시간성의 현실상의 동시 존재, 다양한 문화 및 사회적 다중성의 겹고트는 우발성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그 안과 사이에서 빠르게 증대하는 불평등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던져진다. 이는 확실히 지금 그대로의 세상처럼 보인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더이상 “우리의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가 그것의 반대쪽을 관통하도록 뺏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확실히 “시간”도 아닌데, 왜냐하면 모던이 모든 것 위에 드리워서 스스로를 한 시대로 정의하고 과거를 시대들로 구분했다면, 컨템포러리의 조건들 속에서는 시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태에서 유일하게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것은 어쩌면 이것이 특정할 수 없는 시간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어쩌면 뒤틀려서 “영원”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들레르(Baudelaire)가 희망했던 것과 같은 섬세한 변형으로서가 아닌, 자크 데리다가 도래-하기(à venir)로 이론화한 것과 같은 끊임없는 발단의 일종일 것이다. 미리 내다보거나 예측할 수는 없어도, 언제나 다가올, 끊임없이 계속되는 도래 말이다.<sup>14)</sup>

이와 유사한 일련의 심문과 통찰이 1997년에서 2005년 사이에 쓰인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의 문집 『합의의 시대를 평론하다(Chronicles of Consensual Times)』를 채우고 있지만, 그것들은 “시대(the times)”에 관한 더 넓은 이론이나 심지어는 추측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보다 그들은 가짜 합의를 통해 해게모니적인 폐쇄성을 획득하려는 시대의 노력에 맞선다.<sup>15)</sup>

비슷하게,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은 2007년 유러피언 대학원의 세미나에서 “컨템포러리이기는(be contemporary)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컨템포러리적임(contemporariness)”을 그것의 본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경험

13) Smith, “Introduction: The Contemporaneity Question,” xiii.

14) Smith, “Introduction: The Contemporaneity Question,” 9. 여기에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A Singular Modernity: An Essay on the Ontology of the Present* (London: Verso, 2002)와 자크 데리다의 후기 작업, 특히 *Specters of Marx: The State of the Debt, the Work of Mourning and the New Internation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그리고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ü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ed. Giovanna Borrador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에 실린 9.11 테러 이후의 인터뷰에 대한 내부적인 언급이 있다.

15) Jacques Rancière, *Chronicles of Consensual Times* (London: Continuum, 2010).

하는 것으로서 규명하려고 애썼다. 정확히 그 경험 안에서, 내부 항목들을 파악함으로써 발견되는 진실이라는 것이다. 그는 “컨템포러리(the contemporary)”가 분석 대상이 될 때마다 발생하는 그림자 연극을 해명하기 위해, 주로 비유를 통해 연이은 역설을 제시했다. 우리의 현재 시대와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존재의 상태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면서도, 그는 (내가 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상태가 아무리 보편적이거나 이전부터 존재했던 측면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일반적이거나 널리 공유된 상황으로 이해되는 현재 조건의 성질이라 할 만한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그것을 해내려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철학자, 시인 등에 의해서 어떻게 가장 깊숙한, 존재론적인 영역에서 “컨템포러리적임”이 경험되는지를 스케치했다. 그는 그러한 문제를 다룬 근대 사상의 영역들을 가로질러, 니체에서부터 현대 천체물리학에 이르는 예시를 들었다.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반시대적 고찰(Untimely Meditations, 1873-76)』은 -무엇보다 역사의 결정력에 대한 교만한 존중이 자신의 동시대인들을 미래의 역사는커녕 그들 자신의 삶을 만들 능력도 없는 굴종적인 주체로 격하시켰다는 그의 열정적인 주장이- “진정으로 컨템포러리한, 진정으로 그들의 시대에 속하는 이들은, 그것과 완벽하게 동시에 있지도 않고 그것의 요구에 스스로를 적응시키지도 않는 이들”이라는 역설적으로 보이는 명제의 주요 사례로 인용된다. 반면, 아감벤은 이렇게 주장한다. “컨템포러리적임은, 그렇다면, 자신의 시대와의 단일한 관계인데, 시대에 들러붙으면서 동시에 거리를 둔다.”<sup>16)</sup> 이는 보들레르의 현대성(modernité) 개념의 재연이며, 컨템포러리의 상황에는 부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아감벤의 “정의” (사실, 그것은 포스트모던의 반-정의(de-defini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를 자기 스스로의 거울의 방으로 매몰되는 일에 기질적으로 몰두하는 컨템포러리 미술계 담론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매복된 친숙함이며, 그 단순한, 순환적인 모호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아트포럼(Artforum)』의 전 에디터인 팀 그리핀(Tim Griffin)은 이를 꽤 예리하게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미술을 둘러싼 대화들이 몰두한 곤혹스런 문제 중 하나는 “컨템포러리(the contemporary)”였는데, 일견 자명해보이는 표현이 지금까지는 대체로 거꾸로 작동해왔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주변 세계와의 어떠한 실제의, 연역적인 관계에 앞선 중요한 명명이자 탐구의 대상으로 제기되어왔다. 희망적으로는 이 용어가 그 자체로써 사용된 것이며, 환기적인 방식으로 오늘의 미술 생산의 조건들과 그 수용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구해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요원해 보이는 한편, 충동을 가늠하기는 쉽다. 미술가들, 미술사학자들, 큐레이터들, 비평가들은 모두 오늘의 미술에서 스스로를 직접적으로 선언하는 일이 없는 역사적 궤적들을 찾아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대신 무시간성(atemporality)의 혼란스러운 공기만이 팽배한 와중에 말이다. 실로, 미술의 관념 그 자체까지 약화시킬만큼 다공적인 경계를 갖게 된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미술 시스템 내에서의 “새로운 것”에 대한 투기적인 강박을 감안하면, 역사적인 우위나 구분에 대한 요청은 더욱 절실해지기만 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컨템포러리”의 실질적인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이 그 용어에 부여한 “탈구성(out-of-jointness)”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것은 시간을 이접적으로(disjunctively) 차지할 때 컨템포러리한데, 늘 동시에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어” 보이며, 또는, 오늘의 미술의 관점에서 더 정확하게는, 스스로 시대착오(anachronism)의 씨앗을 담고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sup>17)</sup>

16) Giorgio Agamben, “What is the Contemporary?”, in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40.

17) Tim Griffin, “Out of Time,” Artforum 50, no. 1 (September 2011): 288-89.

이렇듯 만연한 무지에 직면하여, 나는 피터 오스본이 우리의 현재의 컨템포러나이어티의 본질을 사고하고, 특정 종류의 컨템포러리 미술 실천과 사상을 그에 대한 이해에 있어 중심적인 것으로 식별해내려는 탐색에 동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의 『어디에서도 혹은 아무 곳에서도: 컨템포러리 미술의 철학(Anywhere or Not at All: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이 컨템포러나이어티와 컨템포러리 미술 사이의 관계를 사고하는데 있어 기념비적인 저작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설명은 총체적인 “컨템포러리 미술의 철학”에 도달하기보다는, 컨템포러나이어티의 조건들 속에서 만들어진 미술에 대한 접근 상에서 내가 식별해낸 세 가지 주요한 경향성 중 하나 아래의 중요한 하부 경향성 내에서 생산된 미술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즉 첫 번째 경향, 유로-아메리칸(EuroAmerican) 컨템포러리 미술의 경향 아래의, 내가 “리모더니즘(Remodernism)”이라 이름 붙인 추세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그리고 시장을 지배 중인) 미술 매체 -특히 회화, 조각, 영상, 사진- 의 재귀적인 혁신을 말하는데, 이들 매체는 이 (포스트)미디어들이 계속해서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미디어들의 더 더욱 컨템포러리한 매싱(mashing) 내에서 탐구되는 것만큼이나 적절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세기 초 아방가르드에 의해 대변혁을 맞았고 1970년대에 다시 한번 탈바꿈했다. 아트 앤 랭귀지(Art & Language)에 대한 나의 관여에서 입증할 수 있듯, 피터 오스본이 “포스트-개념(post-conceptual)”으로 부르는<sup>18)</sup> 이러한 하부 경향성을 형성하는 미술가, 이론가와 기관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철학적인 접근은 아도르노(Adorno)적인 비판성이다. 컨템포러리 미술에 대한 보다 완전한 철학은 또한 컨템포러리 미술을 구성하는 더 큰 경향성들을 추동하는 개념적인 기획들을 다룰 것인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이 더 큰 그림으로 가는 길목에서, 컨템포러나이어티 문제의 지정학적인 프레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매우 최근의 미술 담론에서 만연한 미술과 사상 사이의 자족적인 결합을 깨어 내기 위한 필수적인 경로이기 때문이다.

## 그럴 수 있는 권력을 가로채어 자행하는 이들에 의해 발생 중인 현재의 구축으로서의 지정학적 컨템포러나이어티

2000년을 즈음한 몇 년간, 당대 세계의 조건에 관한 질문들이 가장 공적인 미디어에서부터 가장 심원한 학문 분야에서까지 모든 영역에서 제기되었다. 왜일까? 그러한 질문들은 어디에서 왔던가? 그 질문들은 어떤 문제들을 특정해내려고 시도했고, 어떠한 결정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었나? 무엇보다, 어떠한 종류의 세상이 이러한 종류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나?

『뉴욕 타임즈 매거진(New York Times Magazine)』의 한 기자는 2002년 여름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의 대화에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보도했다.

이 보좌관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 기반 커뮤니티라고 부르는 것에 속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것을 “인식 가능한 현실에 대한 자신의 분별력 있는 탐구로부터 해결책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로 정의했다. 나는 주역대며 계몽주의의 원칙과 실증주의에 대해 뭘가를 중얼

18) Peter Osborne, *Anywhere or Not at All: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London: Verso, 2013).

거렸다. 그는 내 말을 끊었다. “그건 더 이상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했다. “우리는 이제 제국이고, 우리가 행동할 때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현실을 탐구하는 동안 -당신이 그럴 것처럼, 분별력 있게 말이죠- 우리는 다시 행동할 것이고, 다른 현실들을 창조하겠죠. 당신은 그것도 탐구할 수 있을거고요. 그리고 그게 일이 진행되는 방식일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행위자들이죠 ... 그리고 당신, 당신 모두는, 우리가 하는 일을 그저 탐구하도록 남겨질 겁니다.”<sup>19)</sup>

이 수석 보좌관은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장기 정치 전략 고문인 칼 로브(Karl Rove)로 알려진다. 대통령 본인도 9.11 테러 이후 몇 년간 대체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꽤 자주 펼쳤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 31일 워싱턴 D.C. 미국 의회에서의 연두 교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시기에 리더십을 요청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청한 적이 없는 거대한 이념적 갈등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상업의 거대한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합니다. 때로는 역사가 넓은 호를 그리고 돌며, 미지의 해변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시대에, 고립주의와 보호주의의 길은 넓고 유혹적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위험과 쇠락에 닿아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유일한 길은 우리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계속해서 리드해나갈 것입니다.<sup>20)</sup>

이 시기에, 부시는 이라크 전쟁의 가속화 하는 재앙에 적대적인 민주당 의회에 맞서고 있었다. 이라크 전쟁은 그 자체로 부시, 체니(Cheney), 그리고 그 신자유주의 근본주의자 패거리에게 의해 수호되는 정실 자본주의의 브랜드가 진보적인 경제적, 사회적 조직의 보편타당한 모델로서 중동에 수출된 결과로 나타난, 민족 국가의 재앙적인 와해였다. 대중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 혹은, 더 낮게는 그들이 두려움에 얼어붙고, 순간에 갇혀, 다음 재앙이 발생하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 말하자면, 완전히 컨템포러리하게 하는 것- 은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이 그녀의 저서 『쇼크 독트린(The Shock Doctrine, 2008)』에서 “재앙 자본주의” 라고 적절히 이름 붙인 것의 성공에 필수적이였다.<sup>21)</sup>

또한 부시는 1989년 이후 세계에 유일하게 남은 “극초강대국(hyperpower)”, 냉전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로브가 그토록 노골적으로 표현했듯 헤겔적인 세계사(World History)를 만들고 형성하는 책임을 물려받은 계승자로서의 미국에 관한 더 거대한 감각에 호소하고 있었다. 영향력 있는 저널 『포린 어페어(Foreign Affairs)』의 에디터 기디온 로즈(Gideon Rose)는 자신의 2012년 에세이 <모더니티를 작동하게 하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Making Modernity Work: The Reconciliation of Capitalism and Democracy)>에서 이 모델의 더 온건한 버전인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를 정의했는데, 그것이 부시, 체니와 신자유주의 일당에 의해 수호되는 정실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약탈들, 그 외에 세상이 거기에 던져넣을 수 있는 모든 것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아마도 계속해서 흡수할 것이라고 이야

19) Ron Suskind, “Faith, Certainty and the Presidency of George W. Bush,” The New York Times Magazine, October 17, 2004, at [http://www.nytimes.com/2004/10/17/magazine/17BUSH.html?\\_r=0](http://www.nytimes.com/2004/10/17/magazine/17BUSH.html?_r=0).

20) Cited New York Times, February 1, 2006, A20 and A21.

21) 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New York: Picador, 2008).

기했다.

현대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관한 주요한 투쟁들은 지난 세기의 전반기에 일어났고, 그것은 세상이 이제껏 목격한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끝을 맺었다 ...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과 혼합 경제들의 상호 지지하는 전후의 질서가 그것이다.<sup>22)</sup>

그러나 나는 이 전후 혹은 냉전 후의 질서가 공고해지기는커녕 우리가 그것의 붕괴를 경험하고 있다고 제안한다. 로즈의 간단한 공식 중 어떠한 사항들도 작동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자기파괴 종이거나(금융자본) 자기 무력화 중이며(정부들), 그들의 혼합체는 무너지고 있고 그들의 서로에 대한 지지는 전혀 상호적이지 않게 되었다. 한편, 다른 종류의 대규모 실험들이 전 세계의 취약한 국가들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대적인 실험들의 물리적인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지구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붕괴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수많은 기이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를 취할 것이며, 많은 재발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붕괴는 일어날 것이다. 타협 불가능한 차이의 컨템포러나이더티가, 남은 전부인 것 같다. 그런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그려질까?

## 컨템포러나이더티: 메타-세계상

내 견해로는 세 가지 경향성이 컨템포러리의 삶과 사상을 관통해 흐르며 모더니티의 거대 서사들을 해변에 밀려온 고래들처럼 고립시키고, 분열적인 차이들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그것을 이 강력한 경향성들에 실어 보내고 있다. 이것은 현재를 관통하는 역사적 힘들의 형태에 관한 역사적인 주장이다. 그 밑바탕에는 사유에 대한 인간 사유(human thinking about thinking)의 본성, 그리고 (그와 같은 주제가 여전히 상상될 수 있다면) 어쩌면 인간 사상(human thought)의 본성의 역사적 변환에 관한 직관이 있다.

### 컨템포러리 되기(becoming contemporaneity) : 세계의 경향성들 (메타-세계상)

#### 지속되는 모더니티들

세계화, 냉전 이후 극초강대국; 문명의 충돌, 스펙타클성(Spectacularity),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포스트 역사(Posthistory), 발명된 유산(Invented Heritage), 리모더니즘들

(이들 사이에는 변증법적인 상반성이 있지만 기대되는 해소는 없다)

### 이행하는(transitional) 트랜스내셔널리티

탈식민지화; 토착화(Indigenization); 반-오리엔탈리즘 그리고 포스트 식민 비판, 운동들의 운동(the movement of movements), 반-세계화; 포스트모던 패스티시, 뉴

22) Gideon Rose, "Making Modernity Work: The Reconciliation of Capitalism and Democracy," Foreign Affairs 91, no. 1 (January/February 2012), 2.

리얼리즘들; 역 근대화(중국, 아시아의 “호랑이들”); 부활한 근본주의들; 폭동적  
아나키즘들

(이들 사이에는 차이, 인접성, 이율배반적 마찰이 있다)

### 동시 존재하는(contemporaneous) 차이들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 담론들의 동시 존재성(contemporaneousness);

비매개성(Immediation) 속에서의 자기형성(Self-fashioning);

세계시민주의/행성성(planetary), 세계시민권에서부터 필요에 따른 친화적 연결성에  
이르는(점거(Occupy)); 에코 행동주의; 열린 형태의(open-form) 혁명들.

틀림없이 차이들에 대한 서로 다른 조정과정이 될 일을 해내는 데에는 수십 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제안하는 이것이, 우리가 컨템포러나이어티를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  
가 그것을 현재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프레임할 때 우리의 컨템포러나이어티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개념들 각각은 세계-존재(world-being)에 대한 지향성의  
각 군집을 드러낸다.

## 컨템포러나이어티와 컨템포러리 미술

또한 나는 이러한 경향성들이 컨템포러리 미술에서 명백히 드러남을 수년간 주장해왔다.  
가장 근래의 것으로는, 어떻게 그러한 경향성이 실제로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다중의 모더  
니티들에 기반해 발전했으며 또 어떻게 세계 곳곳의 미술 생산 중심지들에서 서로다른 방식  
으로 그랬는지를 조망한, 『컨템포러리 미술: 세계적 경향들(Contemporary Art: World  
Currents)』이라는 책이 있다. 심대한 차이들은 도처에 분명하다. 내 책의 영국과 미국 판본  
의 출판사가 고른 다른 표지 이미지의 대비가 한가지 사례다.<sup>23)</sup>

1950년대 이후 미술의 발전은 세 가지 경향성으로 도식화될 수 있다. 이 경향성들은 이후  
수십 년간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구분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는 퍼진 손  
의 손가락들과 같아서, 특정한 방식으로 충돌이나 수렴에 이르지만, 언제나 분화하여 열린  
미래로 향하며, 결코 “글로벌 미술”, “세계 미술”, 혹은 심지어 “컨템포러리 미술” 으  
로 명명될 수 있는 주먹의 형태로 병합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동시 존재하  
는(contemporaneous) 차이들, 자신들의 내적인 컨템포러나이어티들, 그리고 자신들의 서로  
에 대한 동시성(contemporality)을 견지한다. 이것은 현재를 통해 작동하는 역사적인 힘들  
의 형태에 관한, 그리고 앞서 언급한 관념적인 지향성들이 어떻게 미술 내에서 발생하는지  
에 관한 미술사적 주장이다.

### 1. 유로-아메리카의 컨템포러리 되기(becoming contemporary)

(미술 운동, 시장)

1. 후기 모던 미술이 컨템포러리가 됨
2. 포스트모더니즘, 레트로-센세이션리즘(Retro-Sensationalism), 리모더니즘

23) Terry Smith, Contemporary Art: World Currents (London: Laurence King;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2011).

## II. 트랜스내셔널 이행들

(이념, 이슈)

1. 탈식민주의, 민족주의
2. 세계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3. 세계시민주의, 번역(Translation)

## III. 컨템포러리 관심사들

(전략, 공상)

1. 세계상 그리기, 정치적인 미술 만들기
2. 환경주의, 참사, 행성성
3. 시간, 매개화(Mediation), 세계하기(Worlding)의 정동

이것은 다른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전체화된 혹은 다원적인 모델들과 관련되는 복잡한 그림이지만, 더 높은 수준이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무언가가 아니다. 나는 이것이 공간적인 어휘로,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건축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흡족했는데, 스티븐 홀(Steven Holl) 어소시에이츠의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컨템포러리 미술 연구소 설계안(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at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2011-15)>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이었다. 홀의 디자인 개념은 컨템포러리 미술을 “현재의 평면(the plane of the present)”을 통과해 “갈라져 나가는 시간(forking time)”, 즉 홀이 “스케일없음(scalelessness)”으로 부르는 것을 향해 밖으로 열리는 세 개의 병렬된 시간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각화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에서 “스케일없음” 부분은 위층의 네 번째 갤러리와 대학 캠퍼스와 연결되는 “사유의 장(thinking field)”이라는 이름의 정원이 될 것이다.<sup>24)</sup>

컨템포러리 미술의 경향성을 건축적으로 상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컨템포러니어티”가 “컨템포러리(the contemporary)”의 동의어가 아니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컨템포러리”는 명사가 없는 형용사구이다. “컨템포러리한 ... 무엇?”이라는 질문을 늘 던져보라. 대부분의 경우에 당신은 발화자가 “컨템포러리한 세계”, “우리의 컨템포러리한 상황”, “컨템포러리한 조건”, “컨템포러리한 경험” 등의 축약형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 사례들에 있어, 어떤 명사가 가장 적합한지에 관한 불확실성은 특히 미술 담론이 그 마지막 단어를 공란으로 남겨두도록 유도했다. 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시대가 우려되는 결과 없

24) Steven Holl Associates,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at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Richmond, 2012-15.

<http://www.stevenholl.com/project-detail.php?type=museums&id=123> 를 볼 것.

그의 2012년 윈드물러 예술가 강의(Windmueller Artist Lecture)에서 홀은 이 디자인이 “거대 서사들(master narratives)”의 지배로부터 아티스트들이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목적들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방향성이 “순수예술”일 수 있는 확장적인(open-ended) 가능성으로 미술의 변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사용하는 사례들은 더그 앳킨(Doug Aitken), 브라이스 마든(Brice Marden)(“이제, 아무도 회화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에두아르도 칠리다(Eduardo Chillida),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다.

<http://ica.vcu.edu/events/past/video-windmueller-artist-lecture-series-presents-steven-holl/>에 있음.

이 스스로의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느끼는 이들이 그 자리를 비워두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공간이었다. 사실, 분열적 차이들의 컨템포러나이어티가 1960년대 이래로 빈칸을 채워왔다. 지금의 진정한 “공백”은 우리의 연결된 행성성(planetary)에 대한 완전한 자각으로 채워져야 할 장소(place) 내의 공동(void)이다. 세계상 그리기(world picturing)는 모든 곳의 예술가들이 열중하는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컨템포러리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차이들을 세계가 요청하는 연결들이 되게끔 빚어낼 수 있는가?

## 도래할 행성성

나의 제안은 우리가 이 전제로부터 좀 더 광범위한 탐색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계들을 진짜 관계성 속에서 그려내고, 우리 각자를 위해 생존 가능한 장소의 감각을 만들고 유지하며, 세계들과 장소들 사이에서 같은 시대에 속하는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 분열을 초래하는 차이가 만연하며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컨템포러리 세계-존재(world-being)의 도전이다. 가야트리 차크라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은 그녀의 책 『경계선 넘기(Death of a Discipline)』에서 이와 비슷한 것을 요청했다. 학생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대륙적(continental)이거나, 글로벌하거나, 세계적(worldy)이기보다 행성적(planetary)으로” 상상함으로써 “지역 연구(Area Studies)로 보완된 비교문학의 지원을 받아, 경계들을 횡단하는” 글을 쓰기를 촉구하며, 그녀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행성(planet)으로 세계(globe)를 덮어쓸 것을 제안한다. 세계화란 동일한 교환체계를 모든 곳에 강요하는 것이다. 전자 자본의 그리드 내에서, 우리는 위도와 경도로 뒤덮이고, 한때는 적도와 열대 등의, 또 지금은 GIS(지리정보시스템)의 요구사항들에 따라 그려지는 가상의 선으로 잘려 나뉘는 추상의 구를 얻게 된다. 구별짓기된 정치적 공간이 아닌 분리되지 않은 자연적 공간을 적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환경주의로 행성 논의(planet-talk)를 논의하는 것은 세계화의 이익에 그와 같은 추상화의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 (나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문학들을 구별짓기된 정치적 공간이 아닌 구별짓기 되지 않은 영어의 공간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이와 관련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세계(globe)는 우리의 컴퓨터상에 있다. 거기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행성(planet)은 타자성의 종(species) 안에 있으며, 또 다른 시스템에 속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거기에 거주한다. 세들어서 말이다. 행성은 세계와의 딱 떨어지는 대비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행성은, 반면에”와 같은 식으로 말할 수 없다. 내가 행성을 소환할 때, 나는 이 파생되어 온 것이 아닌 직관의 (불)가능성을 그려내는 일에 요구되는 노력을 생각한다.<sup>25)</sup>

2012년 피츠버그 대학 방문 당시 나의 질의에 답변하며, 그녀는 형식적으로 과도하게 일반화된, 이 세계화를 대신하는 행성성에 대한 요청을 부정했다. 그녀가 행성성을 정식화했을 때가 2003년이니 너무 일반화되기는 했지만, 내게는 여전히 -확실히 우리 현재의 위기에서는 가장 유효한- 요청으로 남아있다. 이 요청을 더 현실화하기 위해, 더 추상적인 동시에

25) Gayatri Chakravorty Spivak, *Death of a Discipli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72.

더 구체적으로, 더 메타-상인 것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한 시도에 있어서, 나는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가 『철학이란 무엇인가?(What is Philosophy?)』에서 펼친 주장에 영감을 받았다. “사상을 예술, 과학, 철학이라는 세 가지 위대한 형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언제나 카오스에 맞서는 것, 평면을 펼쳐놓는 것, 카오스 위에 평면을 던지는 것이다.” 26) 그들은 이 세 가지 “위대한 형식들” 이 병렬적이지만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은 철학적 개념이 형성되는 “내재성의 평면”, 과학적인 관찰자가 상황, 기능, 참조점을 정의할 수 있게 되는 “지식의 평면”, 예술가들이 그 위에서 “정동작용에서 정동을”, “지각에서 지각된 것을 얻어내는” “일관성의 평면” 을 구분한다.27)

나의 탐색은 좀 더 폭넓어졌다. 내가 앞서 개괄한, 들뢰즈와 가타리가 “비철학”, “비과학”, “비예술” 로 묘사한 어떤 것인28) 세계상들(world pictures)의 메타-상(meta-picture)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카오스를 가로지르는 조금 더 많은 교차 평면들 혹은 개념적인 절단들을 던져넣으려고 시도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는 네 개의 그러한 평면들, 한 세트의 플라노메나(planomena)를 상상할 수 있다.29)

**세계-내부의-세계들 : 플라노메나**

- 지구, 행성, 자연사들(natural histories), 진화, 정보(information)
- 지각 있는 내면성 (인간, 동물, 사물적(thingly), 기계적?(machinic?))
- 사회들, 사회적 관계들, 지역 경제들, 민족 국가들, 문화들
- 지정학과 경제학들, 국제적 협의들, NGO들, 문명들

이것들은 세계 존재의 환원 불가능한 무대(arenas) 혹은 장(fields), 아마도 그중 필수적인 것들이다. 이들은 기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각각은 실질적으로나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역사적으로 그리고 실용주의적으로 볼 때 서로 묶여 있다. 실로 모든 세계적(worldly) 경험은 이러한 평면들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서 발생하고 보여지게 되며, 모든 생각은 이 평면들의 성질, 평면 위 요소들 사이의 관계들, 그리고 평면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한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이들 평면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들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것이며, 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인가?

나는 사무엘 P. 헌팅턴(Samuel P. Huntington)과 조셉 나이 주니어(Joseph Nye Junior) 같은 세계화 및 정부 이론가들이 1990년대에 발전시킨 잔인할 정도로 단순한 모델링30)에 대한 반작용에서 이 제안의 영감을 부분적으로 얻었다. 나이는 복수의 체스판 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행위자가 하나의 판(예를 들어 지정학)에서 말을 움직이면 그것이 다른 판(예

26)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What is Philosoph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117.

27) Ibid., 166.

28) Ibid., 218.

29) 들뢰즈와 가타리가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일관성의 평면 혹은, 더 정확하게는, 개념들의 내재성의 평면”으로 이야기한 플라노메나(planomenon)을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역자 주

30)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the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huster, 1997), Joseph S. Nye Jr, The Future of Power (Cambridge, Mass.: PublicAffairs, 2011), and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Cambridge, Mass.: PublicAffairs, 2004).

를 들어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체스 게임으로 전세계에 걸친 힘의 분배를 상상하기를 제안했다. 그는 미국이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유관 영역에 걸친 힘의 효과를 인식한 채, 계획적인 방식으로, 의식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행동해야 함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따른 그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 개념은 세계 곳곳의 정부들, 특히 중국에 의해 외교정책으로 적극 채택되었다.) 푸코(Foucault)를 잊고 기후변화에 무관심한 채, 강압적인 권력에 더 큰 관심을 가지는 나이와 헌팅턴은 모두 내면성과 행성성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상명하달식의 “시각성(visibility)” 를 고집하는데, 이는 17세기 이래 더 민주적인 “볼 권리(right to look)” 와 경쟁하며 주로 그것을 제압해온 것으로 니콜라스 미르조에프(Nicholas Mirzoeff)가 추적하는 개념이다.<sup>31)</sup>

이 평면들을 연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의 유형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통해 이 다층적인 접근을 복잡화해보겠다. 이것이 70년대에 <스타 트렉(Star Trek)>에서 커크 선장과 스팩 중령이 자주 하던 3차원 체스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고 적어도 덜 허구적이기를 바라본다. 나는 이 관계들이 끌어 들여온 명칭들을 통하여, 이 관계들이 취하는 가장 두드러진 형식들(forms)의 일부만을 보일 것이다. 이는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질 것인데, 첫 단계는 내가 되기의 상태들(states of becoming)이라고 부르는 것을 평면들에 추가하는 것이다.

### 세계/세계들/세계하기(worlding): <상태들> & 평면들

지구, 행성, 자연사들, 진화, 정보

<토착성(Indigeneity), 생태학, 가상성>

지각 있는 내면성 (인간, 동물, 기계적? 사물들?(things?))

<예술, 언어, 섹슈얼리티들, 믿음, 인문학들, 과학들, 미디어, 테크놀로지들>

사회들, 사회적 관계들, 지역 경제들, 민족 국가들, 문화들

<협력, 외교, 전쟁, 범죄, 네트워크들>

문명들, 지정학과 경제학들, 국제적 협의들, NGO들

<시간성: 모더니티, 세계화, 세계성(globality), 행성성>

내가 평면들, 혹은 존재의 장들 사이에 삽입한 용어들은 당연히 그 종류와 역사적 변천에 있어 대단히 다채롭다. 나는 이것들을 존재의 평면들의 기반으로 함께 작동하는, 되기의 상태들의 명칭들, 혹은 행위의 방식들(modes of acting)로 본다. 그들은 그들 각각의 가능성의 조건이다. 그들은 평면들이 내재할 수 있게, 존재가 나타나고 그게 다른 존재들이 되는(becoming)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토착성은 모든 생명들(인간들, 동물들, 식물들)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방식이다. 예술은 내면성과 지각의 가장 심원한 사회적 표현이다. 협력은 가장 작은 집단들에서부터 세계 규모의 문명들에까지, 모든 사회적 형성의 핵심에 있다. 한편 시간성은 동시 존재하는(contemporaneous) 차이와 역사적인 연속성과 변화를 등재하는 상태다.(그 모던과 컨템포러리의 명칭들이 마지막 줄에 함께 열거되어 있다.)

비슷한 패턴이 오른쪽에 있는 용어들을 따라 움직일 때 드러난다. 이는 세계가 언제나 순수한 정보로 존재해왔다고 전제한 이후 시간에 따라 다변화한 형태를 띠며, 주로 테크놀로

31) Nicolas Mirzoeff, The Right to Look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1).

지의 형식과 조직적인 구조로 등장한다.<sup>32)</sup> 중심부를 따라 이동하면 그보다 더 미묘한 패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아직 나에게 선명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패턴들이 아래위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질문하게 된다. 연결들은 어떻게 세계 되기(world becoming)의 상태들과 존재(being)가 등장하고 행위하는 평면들 사이를 직조하는가? 우리는 세 번째의 용어 세트의 필요성을 간파하게 된다. 모든 정적인 이미지를 압도하기에 내가 아직 시각화할 방법을 찾지 못한 용어들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그들을 연결성들(connectivities)이라 부르고 싶다. 나는 그것들을 시간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하는 시공간 내의 행위들로, 반복되고 확장된 행위의 패턴으로 이해한다. 그것들은 즉각적으로 친숙한 이름을 갖고 있다: 당연히, 처음으로, 생각하기(thinking)가 있고, 또 바로 이어 상상하기(imagining), 그리고 어림하기(figuring), 그리고 다른 모든 관련된 과정으로 이어진다. 느끼기(feeling), 투사하기(projecting), 감별하기(identifying), 소통하기(communicating) 등 말이다. 더 건조하게 말하면, 생산하기(producing), 소비하기(consuming), 생산형 소비하기(prosuming)이 된다. 또는 권력의 언어로 표현하면, 경고하기(warning), 억제하기(deterring), 협상하기(negotiating), 교전하기(skirmishing), 전쟁하기(warring), 증파하기(surgings)<sup>33)</sup>, 화친하기(peace making), 화해하기(reconciling), 경계하기(watching)가 된다. 혹은 넷의 행위들로 표현하면 검색하기(searching), 네트워킹하기(networking), 스트리밍하기(streaming), 이동하기(flocking)이다. 또는 물물교환하기(bartering)에서부터 발전된 자본주의까지 다양한 종류의 경제들이 있다.(여기가 자본주의에 들어맞는 자리이다. 한 종류의 연결성으로서 말이다. 아주 강력하지만, 우발적이며, 의존적인 것. 리모더니스트들이나 포스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디폴트값으로서의 동인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혹은 이데올로기들, 그리고 헤게모니적인 작동들이 있다. 그 밖에도 많다. 모두 특정한 실천들에 특유하며, 다른 것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물자체들(things-in-themselves), 혹은 유사한 과정들과 제한되거나 국지적인 연결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장소 만들기가 어떻게 세계하기(worlding)에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들을 이 레이어들과 연결의 형태들을 통과해 직조해 나가는 실이나, 공간과 시간을 예상치 못한 인접성으로 끌고 오는 접힘들(미셸 세르(Michel Serres)는 이것을 구겨진 손수건의 표현을 가로지르는 연결들로 비유한다), 네트워크들을 생성하는 노드들로 상상하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유동적인, 삼차원적인 매트릭스를 제공한다.<sup>34)</sup> 우리가 이 활동-이 상태들과 평면들 사이의 연결성들의 직조, 이 다른-세계들과-같이있는-세계들의 성좌 내에서의 위치결정으로서의 개인적인 그리고 집합적인 장소 만들기-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그것을 “세계-만들기” 혹은 “세계하기”로 부르도록 하자.<sup>35)</sup> 우리는, 모두 다 같이, 그리고 지

32) James Gleick, *The Information: A History, A Theory, A Flood* (New York: Vintage, 2011).

33) ‘surge’는 특히 이라크 전쟁의 맥락에서 2007년 부시 대통령에 의해 이뤄진 적극적인 파병 증원 전략을 뜻하는 표현으로 유행했다 - 역자 주

34) Jane Bennett and William Connolly, “The Crumpled Handkerchief,” in *Time and History in Deleuze and Serres*, ed. Bernd Herzogenrath (London: Continuum, 2012), 153-71.를 볼 것. 이 참고문헌에 대해 주디스 파쿠하(Judith Farquhar)에게 감사한다.

35) 물론, 나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넬슨 굿맨(Nelson Goodman) 등등, 에드 케이스이(Ed Casey) 등등, 마르크 오제(Marc Augé) 등등, 세계들에 대한 사유의 훌륭한 전통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사유를 그들 이후에 부상하고 있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속적으로, 세계-한다 ... 우리가 연결성들을 드러내고, 그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예술작품을 만들고, 전시하고, 거기에 참여할 때가 여기에 포함된다.(사실은, 그때 특히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와 피터 오스본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는 근래의 글을 이렇게 끝맺었다. “성공적인 포스트 개념 작품은 컨템포러리를 구성하는 내부적인 시간적 이접성들을 횡단한다.(앞뒤로 가로지른다.) 그리고 형식의 내재적인 이중성(개념적, 미적)의 층위에서 시간적 이접성들을 그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그 각각은 세계의 세계하기(worlding of the globe)의 압축적인 파편이다.”<sup>36)</sup>

## 세계하기

이 강의 내내 나는 이렇게 질문해왔다. 우리의 컨템포러리한 상황들 속에서, 모더니티가 쪼개지고 희미해지는 동안, 어떻게 시간의 다중성 그 자체가 지금을 형성하며, 새로운 존재의 방식들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자기파괴에 이르는 위험 감수가 다시 한번 중대한 한계에 도달했음을 알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세계 시스템으로서의 세계화의 만연성과 또한 연쇄적인 붕괴, 시장 극단주의의 수용에 관한 대부분의 정치 시스템의 무능력, 모든 곳에서 많은 종류의 혁명을 촉발 중인 국가들 사이의 또 그 내부에서의 가속화 하는 불평등,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세에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호 보증된 파괴의 변증법.<sup>37)</sup> 이것이 우리 현재의 차이의 컨템포러나 이어티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들이다. 이 힘들 안에서, 그러나 주로 그것들에 반대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그리고 언급된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이 지도를 그리고자 시도했던, 세계 그리기의 메타-상과 장소 만들기과 연결성으로부터 존속 가능한 행성적 자의식을 구축해야 함을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게 우리를 감싸오는 절멸 속을 누비며 나아가고, 어쩌면 그것을 늦추거나, 혹은 구분짓기 되지 않은 글로벌 합의나 악화된 통약불가능성이 아닌 (불가능하지만 또한 “자연적인”) 행성적 존재의 상태인, 구별짓기된, 같은 시대의 존재들(coevals) 사이의 세계적(worldly) 계약을 회복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도함으로써 적어도 그것에 맞설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사항>

(\*본 논문 별도의 참고문헌란 없이 미주에 해당되는 Notes가 있어 이를 그대로 옮김. 상기 번역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각주로 삽입 혹은 번역하였으며, 역자 주로 인해 번호는 일치하지 않음.)

1. Georg Friedrich Wilhelm Hegel, *The Philosophy of Right*, trans. S. W. Dyde (New York: Cosimo, 2008), “Preface,” xx and xxi.

36) Peter Osborne, “The Postconceptual Condition: Or, The Cultural Logic of High Capitalism Today,” *Radical Philosophy*, no. 184 (March/April 2014): 26.

37) 예를 들어 다음을 볼 것. Naomi Klein,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ersus the Climate* (New York: Simon & Schuster, 2014).

2. Paul Ricoeur, *Time and Narra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1985 and 1988).
3. Peter Osborne, *The Politics of Time: Modernity and the Avant-Garde* (London: Verso, 1995).
4. Søren Kierkegaard, *The Present Age* [1846], trans. Alexander Dru (New York: Harper Torchbook, 1962), 33.
5. See Søren Kierkegaard, *Philosophical Fragments* [1844], in *Kierkegaard's Writings*, vol. 7, trans. Howard V. Hong and Edna H.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ch. 4 "The Case of the Contemporary Disciple", and the detailed exposition by "Anti-Climacus" in *Practice in Christianity* [1850] in *Kierkegaard's Writings*, vol. 20, trans. Howard V. Ho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6. Walter Benjamin, *The Arcades Project*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N, 3, 1, p. 463.
7. Jacques Derrida, *Margins of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82), 21.
8. Jacques Derrida, *Of Grammatology*, trans. Gayatri Chakravorty Spivak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6), 5.
9. See my "Introduction: The Contemporaneity Question," in *Antinomies of Art and Culture: Modernity, Postmodernity, Contemporaneity*, eds. Terry Smith, Okwui Enwezor and Nancy Condee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8), 1.
10. Smith, "Introduction: The Contemporaneity Question," xiii.
11. Smith, "Introduction: The Contemporaneity Question," 9. There are internal references here to Fredric Jameson's *A Singular Modernity: An Essay on the Ontology of the Present* (London: Verso, 2002) and Jacques Derrida's later work, specifically *Specters of Marx: The State of the Debt, the Work of Mourning and the New Internation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and the interview following 9/11 in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Dialogues with Jürgen Habermas and Jacques Derrida*, ed. Giovanna Borrador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
12. Jacques Rancière, *Chronicles of Consensual Times* (London: Continuum, 2010).
13. Giorgio Agamben, "What is the Contemporary?" , in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40.
14. Tim Griffin, "Out of Time," *Artforum* 50, no. 1 (September 2011): 288-89.
15. Peter Osborne, *Anywhere or Not at All: Philosophy of Contemporary Art* (London: Verso, 2013).
16. Ron Suskind, "Faith, Certainty and the Presidency of George W. Bush," *The New York Times Magazine*, October 17, 2004, at [http://www.nytimes.com/2004/10/17/magazine/17BUSH.html?\\_r=0](http://www.nytimes.com/2004/10/17/magazine/17BUSH.html?_r=0).
17. Cited *New York Times*, February 1, 2006, A20 and A21.
18. Naomi Klein, *The Shock Doctrine: The Rise of Disaster Capitalism* (New

- York: Picador, 2008).
19. Gideon Rose, "Making Modernity Work: The Reconciliation of Capitalism and Democracy," *Foreign Affairs* 91, no. 1 (January/February 2012), 2.
  20. Terry Smith, *Contemporary Art: World Currents* (London: Laurence King;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2011).
  21. Steven Holl Associates, Institute for Contemporary Art at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Richmond, 2012-15. See <http://www.stevenholl.com/project-detail.php?type=museums&id=123>. In his 2012 Windmueller Artist Lecture Holl describes the design as meeting the change in art from the dominance of the "master narratives" to open-ended possibility, with artists being able to work in different mediums for different purposes, simultaneously, with each direction being "fine." Examples he uses are Doug Aitken, Brice Marden ("Now, no-one says painting is dead"), Eduardo Chillida, and Richard Serra. At <http://ica.vcu.edu/events/past/video-windmueller-artist-lecture-series-presents-stein-holl/>.
  22. Gayatri Chakravorty Spivak, *Death of a Discipli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72.
  23. Gilles Deleuze and Félix Guattari, *What is Philosoph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117.
  24. *Ibid.*, 166.
  25. *Ibid.*, 218.
  26.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the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huster, 1997), Joseph S. Nye Jr, *The Future of Power* (Cambridge, Mass.: PublicAffairs, 2011), and Joseph S. Nye Jr,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Cambridge, Mass.: PublicAffairs, 2004).
  27. Nicolas Mirzoeff, *The Right to Look*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11).
  28. James Gleick, *The Information: A History, A Theory, A Flood* (New York: Vintage, 2011).
  29. See Jane Bennett and William Connolly, "The Crumpled Handkerchief," in *Time and History in Deleuze and Serres*, ed. Bernd Herzogenrath (London: Continuum, 2012), 153-71. I thank Judith Farquhar for this reference.
  30. Of course, I draw on the brilliant tradition of thinking about worlds, that of Ludwig Wittgenstein, Martin Heidegger, Nelson Goodman, etc., etc., Ed Casey, etc., etc., Marc Augé, etc, etc. But we are coming to their thoughts on these matters from a perspective that is emerging after theirs.
  31. Peter Osborne, "The Postconceptual Condition: Or, The Cultural Logic of High Capitalism Today," *Radical Philosophy*, no. 184 (March/April 2014): 26.
  32. See, for example, Naomi Klein, *This Changes Everything: Capitalism versus the Climate* (New York: Simon & Schuster, 2014).